[JS Deep Dive] 26장 . ES6 함수의 추가 기능

Status

진행 중

ES6 이전과 이후의 비교

함수의 구분

▼ 가장큰 차이 → 함수를 사용목적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했는지의 유무

□ES6 이전

☑ 명확한 구분 x → 한 함수를 생성자로서 호출도 가능하고, 일반함수 로서 호출할수 도 있었다.

- 다양한 형태로 함수를 호출
 - 。 일반함수 호출 / 생성자 함수 호출 / 객체의 메소드로 호출 가능
 - ⇒ 하나의 함수가 여러 역할을 할수 있었기에 혼란 스러웠음
 - 메소드로 만들었는데 실수로 new를 붙여 이상한 객체가 생성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.

• new를 붙여 이상한 객체가 생성이 되면, 아래 sayHello가 prototype 프로퍼티를 가지고, 프로토 타입 객체도 만들어지게됨.

```
const obj = {
    sayHello: function () {
        console.log("Hello, " + this);
    }
};

obj.sayHello(); // 객체의 메소드로 호출

const newObj = new obj.sayHello(); // 생성자 함수로 호출 -> 엉
//모든 함수가 new를 붙이면 생성자가 될수 있었으므로 혼란스러웠음
```

Callable (호출 가능 함수객체): → 그냥 실행하면 일반 함수처럼 실행됨

Constructor (인스턴스 생성 가능): → new 를붙이면 생성자 함수로 동작

non-constructor: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는 함수 객체

□ ES6 이후

- **☑ 메소드 단축 문법 도입** → 객체 메소드를 명확하게 구분
- **▼ 화살표 함수 도입** → this 바인딩 문제 해결
- **☑ 클래스(class) 도입** → 생성자 함수와 일반 함수를 구분

ES6 함수의 구분	constructor	prototype	super	arguments
일반 함수(Normal)	0	0	×	0
메서드(Method)	×	×	0	0
화살표 함수(Arrow)	×	×	×	×

메서드

□ES6 이전

- **☑ 일반적으로 객체에 프로퍼티로 할당된 함수** → 명확한 구분기준 x
- **▼** function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의
- 내부슬롯을 가지지 않음
- 구분기준 : 객체의 프로퍼티로 function이 할당된 경우

```
const obj = {
  name: "Alice",
  sayHello: function () { //function 키워드로 정의
  return "Hello, " + this.name;
  }
};
console.log(obj.sayHello()); // Hello, Alice
```

□ ES6 이후

- ☑ 단축 메소드 문법 추가
- V

메서드 축약표현으로 정의된 함수만을 의미 ⇒ 정확한 정의 규정



내부슬롯을 가지게됨 ⇒ ES6의 super 키워드 사용가능

- 내부 슬롯을 가지게 되므로 ES6부터 등장한 내부슬롯을 사용하는 super 키워드를 사용 할수 있게됨
 - ♦ super 키워드 → 부모 객체의 프로퍼티 or 메소드를 호출할때 사용하는 키워드

```
const parent = {
```

```
sayHello() { //ES6 단축문법
return "Hello from Parent";
}
};

const obj = {
name: "Alice",
sayHello() {
return super.sayHello() + `, I'm ${this.name}`;
}

// `obj`의 프로토타입을 `parent`로 설정
Object.setPrototypeOf(obj, parent);

console.log(obj.sayHello()); // Hello from Parent, I'm Alice
```

화살표 함수

- ▼ ES6에 새로 등장한 함수
- ☑ 기존의 함수 정의방식보다 간략하게 함수 정의
- ▼ 콜백함수 내부에서 this 가 전역객체를 가리키는 문제의 대안으로 활용됨.

□ES6 이전

• 콜백함수내부의 this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ES6 이전에는 Array.map 을 이용해서 두번 째 인수로 콜백함수 내부에서 this 로 사용할 객체를 전달

□ES6 이후

• 화살표 함수는 선언된 위치의 this를 그대로 상속함

- ⇒ 콜백함수 내부에서 this가 undefined가 되는 문제 해결
 - this 를 참조하면 스코프 체인을 통해 상위 스코프에서 this 를 탐색해야하고, 상위 스코프의 this를 가지게 됨

• 함수 자체의 super 바인딩을 갖지 않는다.

- 일반함수에서는 super가 호출된 위치에 따라 동적으로 결정되지만, 화살표 함수에서는 상위 스코프에서 super를 찾음
- but 화살표 함수는 자신만의 arguments 가아니라 상위스코프에서 찾음

• 함수 자체의 arguments 바인딩을 갖지 않는다

- 일반 함수에서는 arguments 라는 유사배열 객체를 통해 전달된 모든 인자를 접근 가능
- 화살표 함수로 가변인자 함수를 구현해야 할때는 반드시 rest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한다.
 - 가변인자 함수(인자의 개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함수)를 만들때 arguments 를 사용 할수 없기 때문에, 반드시 ...rest를 사용해야 한다.

Rest 파라미터

□ ES6 이전

- rest 파라미터 x
- 가변인자 함수의 경우 arguments 객체를 활용했음.
- 그러나 유사배열 객체이므로 배열 메서드를 활용하려면 변환하는 단계를 거쳐야 했음.
- arguments 는 화살표 함수에서 사용 x

□ ES6 이후

- ...rest 는 배열형태로 전달되므로, 배열 메서드를 바로 사용
- 함수 선언 시 몇 개의 인자를 받을지 유연하게 처리 가능

매개변수 기본값

인수가 전달되지 않은 매개변수의 값은 undefined

⇒ 이를 방지하는 방식이 ES6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음

ES6 이전

• 비연산자 사용 or 삼항 연산자

```
function greet(name) {
name = name || "Guest";
```

ES6 이후

• 함수 매개변수에 기본값을 직접 지정

```
function greet(name = "Guest") {
console.log(Hello, ${name}!);
}
```

▼

🚺 자바스크립트에서 부모 객체(프로토타입)란?

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는 다른 객체를 상속받을 수 있어.

- 객체를 상속받는다는 것 = obj 가 다른 객체(parent)를 자신의 프로토타입(부모 객체) 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.
- 프로토타입을 설정하면, obj 에서 없는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찾을 때 parent 에서 대신 찾게 돼.
- 2 Object.setPrototypeOf() 가 하는 일

```
js
복사편집
Object.setPrototypeOf(obj, parent);
```

위 코드는 obj 의 부모 객체(프로토타입)를 parent 로 설정하는 역할을 해.

즉, obj 에서 super 를 사용하면 parent 의 메소드를 참조하게 됨.

③ super 키워드는 어떻게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찾을까?

(1) super 가 부모 객체의 메소드를 찾는 과정

```
js
복사편집
const parent = {
 sayHello() {
   return "Hello from Parent";
 }
};
const obj = {
 name: "Alice",
 sayHello() {
   return super.sayHello() + `, I'm ${this.name}`;
 }
};
// 부모 객체 설정
Object.setPrototypeOf(obj, parent);
console.log(obj.sayHello());
// 11 obj에 sayHello()가 있으므로 실행됨
// ② super.sayHello()를 만나면 부모 객체(parent)의 sayHello
()를 호출
// ③ "Hello from Parent, I'm Alice" 반환
```

🔍 요약:

- 1. obj.sayHello() 실행
- 2. super.sayHello() 를 만나서 부모 객체(프로토타입)인 parent 의 sayHello() 를 호출
- 3. "Hello from Parent" 가 반환되고, I'm Alice 를 추가해서 최종 문자열이 출력됨

(2) obj 의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parent 인지 확인하기

자바스크립트에서는 __proto__ (비표준) 또는 _Object.getPrototypeOf() 를 사용하면 객체의 부모 객체(프로토타입)를 확인할 수 있어.

```
js
복사편집
console.log(Object.getPrototypeOf(obj) === parent); // t
rue
console.log(obj.__proto__ === parent); // true (비표준이지
만 확인 가능)
```

√ 즉, obj 의 프로토타입이 parent 로 설정되었기 때문에, super 를 사용할 수 있는 것!

🤚 핵심 정리

- 1. 객체는 프로토타입을 통해 다른 객체를 부모 객체(프로토타입)로 설정할 수 있음
- 2. Object.setPrototypeOf(obj, parent) 를 하면 parent 가 obj 의 부모 객체가 됨
- 3. super.method() 를 호출하면, obj 에 없는 메소드는 parent 에서 찾아 실행됨
- 4. 프로토타입 연결을 확인하려면 Object.getPrototypeOf(obj) === parent 를 체크하면 됨